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66호 1판 2010년 1월 5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6·2 지방선거 핫이슈

3選 도전 10곳 모두 빅이벤트

실는 순서
1 민주 공천 방식
2 단체장 3선 도전
3 시·도교육감 향방
4 다당제 경합 가능?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초단체장 8명
관록·안정론 對 견제·개혁론 치열

6·2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3선(選) 성공 여부다.

또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황일봉 남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8명도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3선 성공이냐', '신인 대거 진출이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4일 민주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 발전과 행정 업무 성과를 내세우며 3선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3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뚫어야 한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쟁쟁한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벌써부터 경쟁이 뜨겁다.

광주시장 선거는 지난달 14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처음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같은달 17일 양형일 전 의원, 21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출마를 공식화 했다.

또 이달 들어서도 6일 전갑길 광산구청장, 11일 이용섭 의원, 18일 강운태 의원이 출마 선언할 예정이어서 범 민주당 후보군 모두가 박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지사 선거도 박준영-주승용-이석형 3파전 구도가 점화됐다. 지난달 29일 이석형 함평군수가 군수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며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5일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이 동참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왜 '3선 단체장'에 주목하는 걸까. 기초와 광역을 불문하고 모든 단체장은 3선이 '꿈'이다. 법으로 '연달아 세 번'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다.

하지만 3선이면 최장 12년간 수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어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래서 '3선 단체장'이 배출되기가 쉽지 않다.

광주·전남에서 현재까지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은 이석형 함평군수와 김흥식 전 장성군수, 김봉열 전 영광군수가 전부다. 그만큼 3선이 어렵다는 증거다.

3선 도전자는 경쟁 후보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견제도 받는다.

경쟁 후보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인용해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정치권은 공천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어져 자신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원초적 의구심'에 3선 단체장을 꺼린다.

그래서 탁월한 업무 능력은 기본이고 정치력도 뛰어나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가의 이해구도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역량, 유권자의 심리, 선거 분위기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3선 연임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3선을 노리는 후보자는 '나 아니면 안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독선에 빠지지 말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 수업 토론·탐구 위주로 바뀐다

교과부, 주입식 탈피 창의·인성교육 강화

학교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입식 위주로 이뤄지던 수업을 토론, 탐구, 말하기, 글쓰기 등 위주로 전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전 학년 단계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과정으로 구분해 기본과정에서는 기초인성 확립, 체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종일과정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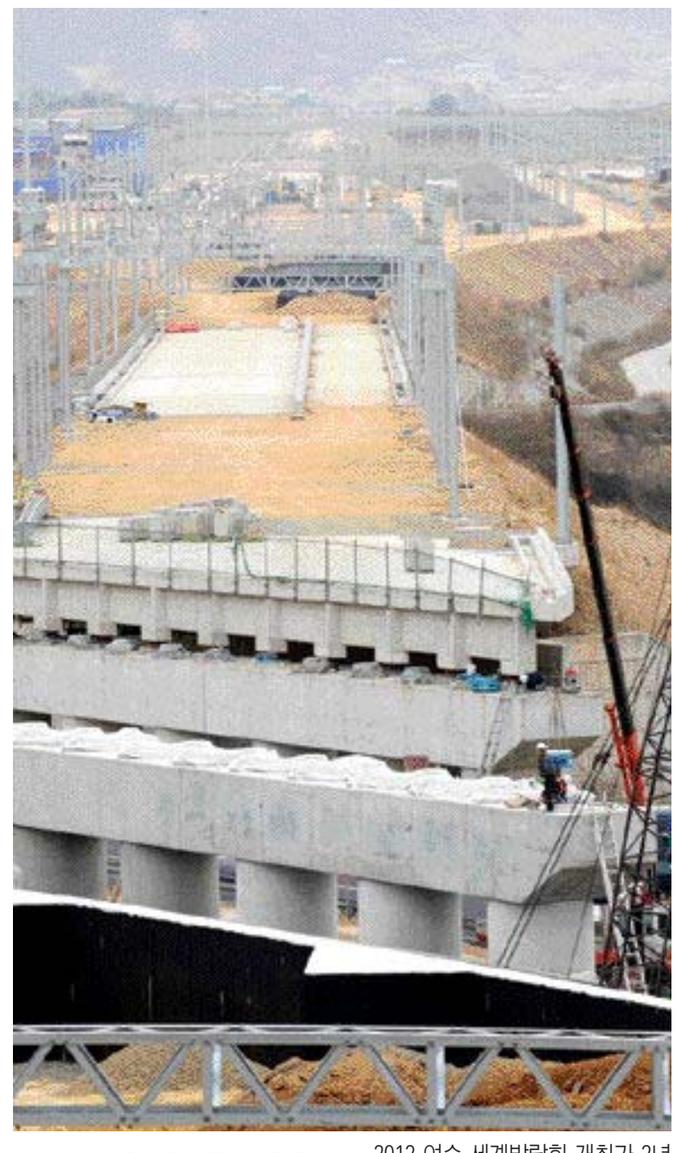
초·중·고교에서는 교과목별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사회, 예체능 등 일반 교과는 글쓰기, 토론, 실험·탐구, 스포츠 경기·공연 관람,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부에 기재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학, 의학 등 전공과 연계된 봉사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각 대학에 권유하는 한편 우수 봉사 활동자는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선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교육청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지정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정보를 담은 '창의적 체험 자원지도'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둠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라선 복선화 공사 한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익산~순천~여수 간 전라선 복선화 공사 공정률이 최고 83%에 이르는 등 2011년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는 일자리 늘리는 해"

李대통령 신년연설 "남북 상시 대화기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에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어 3대 국정운영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는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들과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면서 "새해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신(新) 아시아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小寒 大雪

서울 25.8㎝ 기록적 폭설

4일 서울에 관측 사상 최대인 25.8㎝의 눈이 내리는 등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도 5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5일 강풍과 함께 2㎝~15㎝의 눈이 예상되며, 7일까지 간헐적으로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5일 새벽 광주를 비롯해 나주, 영암, 장성, 해남,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흑산면 제외), 진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다. 또 지난 3일~4일까지 내려진 풍랑·강풍주의보도 6일 오후께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4일 서울의 신적설량(새로 와서 쌓인 눈의 양)은 오후 2시께 관측사상 최대치인 25.8㎝를 기록,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년인사회가 취소됐다. 또 김포 공항 항공기가 9년 만에 전면 운항 중단된 데 이어 KTX와 수도권 전철이 취소됐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종행기자 golee@

本社人事

▲申港樂 논설주간
▲丁在炫 창사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국장) 겸임
▲金旴星 문화홍보국장 직무대리
▲鄭棋太 편집국 부국장
▲金龍基 편집국 중부취재본부장 겸임
▲李宗泰 편집국 서부취재본부장

〈1월 5일자〉